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에게 보내는 편지]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 Ill.)

한국의 고아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마태복음 25:35~36a)

저는 아주 한참,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드디어 한국에 있는 “후원자님의 후원어린이”의 사진, 소개 자료(case history) 등을 받았습니다. 참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려 노력할 때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어린이들의 전체 그룹 사진이나 보육원 시설 사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후원자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후원어린이의 사진과 소개 자료는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안동에서 멀지 않은 곳인 예천(Yechun)에 있는 거룩과 은혜 보육원 (성혜원) (the Holiness and Grace Orphanage (Sung Heh Won))에 속한 60 명의 어린이 중 한 명입니다. 이곳은 제가 작년 부활절에 큰 부흥집회를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전쟁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미군 원조에 크게 의존해 왔던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몇 주 전에 긴급한 요청을 받고 나서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저는 이곳을 전부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호소에 대해 후원자님께서 해 주신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방법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전쟁 동안 공산군에 의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개 자료에는 어린이의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가 둘 다 전쟁으로, 혹은 난민이 되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제가 읽어본 것 중 가장 가슴 아픈 사례들입니다.

이 보육원은 서병옥 씨(Mr. Suh Pyung ok)가 유능한 원장으로 있으며, 제 사랑하는 선교사 친구인 스탠 윌슨 목사(Rev. Stan Wilson)가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의 비율이 늘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여자 어린이 대신 남자 어린이를 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후원자님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소가 적힌 카드를 동봉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우편 발송에 대한 안내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생일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가장 유사한 날로 정합니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한 살이

되고 이듬해 1월 1일에 두 살이 됩니다. (태어난 바로 다음 날 두 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을 이름보다 먼저 표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향한 후원자님의 사랑과 긍휼에, 그리고 "후원자님의 후원어린이" 배정을 위해 참고 기다려 주신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자님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한 이름 안에서 진실하게,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추신. 아직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리에는 아직도 구걸하는 어린이들이 수천 명이나 있습니다. 제 좋은 친구인 피터 반 리에롭 박사(Dr. Peter Van Lierop)는 최근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목사님의 후원 소식은 저를 매우 행복하게 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그리고 다른 도시에도 이런 어린이들이 수천 명 있으며, 이는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원자님의 친구, 친척, 또는 단체가 한 어린이를 후원하는 일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저에게 연락하거나 동봉된 봉투에 기재하여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 주었고,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버렛 F. 스완슨)